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3.03.22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집행위, 탄소중립법안 제안(3.16)

- 동 법안은 EU의 탄소중립 기술 제조 능력이 '30년까지 EU의 전체 보급 수요의 40%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이를 위해 유럽 내 탄소 중립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유치할 것
- 법안은 전략적 탈탄소화 기술로 8가지 기술을 선별하고 지원함

태양광 및 태양열	전해조 및 연료전지	육상 풍력 및 해상 재생에너지	바이오가스/ 바이오메탄
배터리 및 저장장치	탄소포집 및 저장	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	그리드 기술

- 법안은 탄소중립 기술 제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실행방안으로 ▲투자 환경 개선, ▲탄소포집 가속화, ▲시장접근 촉진, ▲인재 양성, ▲혁신 촉진, ▲유럽탄소중립플랫폼 등을 제시함
- 더하여 집행위는 EU 내 재생가능 수소 사용과 국제 파트너를 통한 수소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'유럽 수소 은행'을 제안함
- 한편, 동 법안에 명시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기술 아젠다의 주력 이니셔티브인 Pact for Skills에 따라 15번째 기술 파트너십인 **재생에너지 기술 파트너십이 출시됨(3.21)**

○ 집행위, 핵심원자재법안 제안(3.16)

- 전략적 부문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된 동 법안은 EU의 핵심원자재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승인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집행위는 핵심원자재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의 활용 및 보급을 강화하고, 원자재 아카데미에 대한 대규모 (직업)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인력과 관련된 (직업)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
- 한편, 호라이즌유럽 워크프로그램('21-'24)은 원자재 관련 프로젝트에 최대 4억 7천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음

○ (기타) ▲가브리엘 집행위원, 실리콘 밸리에서 첫 유럽 혁신의 날 개최 (3.21) 및 혁신 인재 플랫폼 출시, ▲한-EU 제19차 공동위원회 개최(3.8)